

영국 왕실 소장품 · BTS 무대의상 만난다

익산시 보석박물관, 이랜드뮤지엄과 첫 교류전시 '퀸즈 컬렉션' 12월 15일까지 개최

익산시 보석박물관이 영국 왕실 소장품과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의상을 선보인다.

보석박물관은 이랜드뮤지엄과의 첫 교류전시인 '퀸즈 컬렉션(QUEENS COLLECTION)'을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영국 왕실에서 실제로 사용된 주얼리와 복식, 애장품 등을 통해 세계 문화에 숭산업 소장품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일 오후 2시에 열린 개막식은 정현을 익산시장과 이랜드뮤지엄 대표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라르고 앙상블의 식전행사와 기념사·축사, 테이프컷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전시회는 영국 왕실의 역사를 담은 소장품을 보며 활화, 가족애, 그리고 러브 스토리를 느낄 수 있도록 인물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전시품은 엘리자베스 2세가 현 국왕 찰스 3세를 임태했던 시절 착용한 무도회 드레스와 엘리자베스 2세의 동생 마거릿 공주의 아쿠아마린 귀걸이 △엘버트 공이 서거 후 남편을 추모하기 위해 착용한 빅토리아 여왕의 애도 모자와 장신구 △사랑을 위해 왕위를 버린 윈저 공작의 의복과 애장품 △찰스 왕세자와의 결혼식에서 다이아네비가 착용한 웨딩 베일 등이다.



익산시 보석박물관은 이랜드뮤지엄과의 첫 교류전시인 '퀸즈 컬렉션(QUEENS COLLECTION)'을 9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한다.

또한 케이(K)-문화산업을 대표하는 소장품도 만나볼 수 있다. 방탄소년단(BTS)이 한국인 최초로 그래미 어워드 축하 무대에서 입었던 의상을 '다이너마이트 룩스'(Dynamite Looks) 특별관에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무료로 운영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고, 입장 마감시간

은 오후 5시 10분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전시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랜드뮤지엄 측에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전시를 계기로 보석박물관이 국내 문화산업을 선도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 순수 민속 공연 '기점몽' 선보인다

한국전통문화전당, 합굿마을과 공동 제작... 13일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13일 저녁 7시 30분 전당 공연장에서 사회적기업 합굿마을(대표 김여명)과 공동 제작한 전주 순수 민속 공연 '기점몽'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공연은 전통 민속의 순수한 형태를 현대에 되살리고자 하는 바람이 깃든 작품으로, 전주의 전통적 문화와 공동체 정신을 무대 위에서 생동감 있게 재현할 예정이다.

전당에 따르면 전주 지역의 고유한 민속적 전통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세심한 연출과 구성을 통해 현대적으로 연출했다.

세부적으로는 전주의 옛 유교 문화와 민속 문화가 교차하는 지점을 강조하며 '기고사, 만두레 소리'와 같은 전통적 소리를 창조적으로 결합해 그 시대의 종류와 예술적 감각을 되살리고자 의도했다. 또한 '용기'를 상징적 오브제로 사용해 수백 년의 전통을 보여줌과 동시에 무형의 문화유산이 후대에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특히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니며,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된 만큼 지역의 순수한 민속적 모습을 담아낸 전통 공연 예술의 창작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 지역의 문화에 관심 있는 누구나 관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합굿마을(063-236-1577)에 문의하면 된다.

김여명 대표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전주의 민속적 요소를 중심으로 전주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적 뿌리를 무대에서 구현하고자 했다"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이번 공연을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이번 공연은 전주의 옛 민속이 단순한 과거 산물이 아닌 현재와 미래를 잇는 문화유산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증명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며 "전통문화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관람을 기대하며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다시금 세우는 값진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광역여성새일센터, 제5회 여성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전북광역여성새일하기센터(원장 전정희)는 '제5회 여성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여성들의 창의적이고 섬세한 창업 아이디어 발굴을 목표로, 사업화 자금, 멘토링, 인큐베이팅 및 지역자원 연계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자격은 도내 예비 여성 창업자 또는 창업 후 5년 미만(공고일 기준)인 여성으로, 개인 및 팀 단위 참여도 가능하다.

오는 13일까지 재단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jbwomen@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대회는 1차 서류심사, 2차 창업캠프, 3차 경진대회 당일 발표대회 순으로 진행된다.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팀을 대상으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하는 창업캠프를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과 창업아이디어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본선 발표대회에서는 상위 5팀을 선발해 최우수상 200만원(1팀), 우수상 100만원(2팀), 장려상 50만원(2팀) 등 총 500만원의 상금을 지원한다.

/장은성 기자

전북여성가족재단, 출범 1주년 기념식 · 포럼 개최

전북여성가족재단은 오는 11일 오후 2시에 재단 출범 1주년 기념식 및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와 정북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소가 통합하며 여성과 가족을 위한 교육·취업·연구 기능을 아우르는 다기능 복합기관으로 출범한 전북여성가족재단은 이후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특별 전북'을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날 열리는 기념식에는 여성·가족·복지·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및 관심있는 도민들을 초청해 재단 출범 1년을 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포럼에서는 '저출생시대, 전북형 가족친화 근로환경 조성방안 모색'을 주제로 기업, 여성·가족 관련 단체 대표, 도민 등이 참석해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과 저출생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紙 안에서 休' 기획전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10월 5일까지 전주천년한지관에서 한지와 대나무로 만든 지우산을 주제로 한 '紙 안에서 休' 기획 전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고요한 공간 속에서 울려 퍼지는 자연의 소리로 함께 전주 한지의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며 온전한 휴식을 만끽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전시 주제인 '지우산'은 반듯하고 촘촘하게 짚은 대나무 살에 한지를 붙여 만들어

낸 종이우산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유구상 장인의 손길을 고스란히 담았다.

이와 관련, 전시에서는 지우산을 통해 우산의 역사와 제작과정, 예술적 가치 및 현대적 응용을 소개하는 등 전주한지와 함께 공예 문화도 경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천년한지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통한지팀(063-281-1638)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지속 가능 세계유산도시 남원 모색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세계유산 활용 전략 수립 보고회 가져

남원시는 지난 5일, 한국의 16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탁월한 보편적가치(OUV) 확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세계유산 활용 전략 수립'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계유산도시 남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해 추진됐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관련 정책지원 사업 발굴 △가치확산 △관광 활성화 △세계유산 콘텐츠개발이자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에 주민들의 관심 환기와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여 세계유산과 지역민이 공존·공생하는 방법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안을 검토·보완하여 중·장기 전략계획을 설정하여 단계



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남원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적가치 확장을 위한 국제학술포럼, 국·내외 전문가 토크쇼 등을 1단계 단기과제로 확정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2024년 하반기 준공예정인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과 연계한 다양한 활용사업 콘텐츠를 개발하여 세계속의 남원, 남원속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